

김재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¹⁾) 1차 구술

1. 구술자: 김재규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5월 19일
5. 구술장소: 부산 동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시민교육원
6. 구술분량: 08분 43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부림사건²⁾의 배경, 첫 만남과 재판과정

구술자 : 팔십일(81)년도에 접어들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나무타고 하는 시위³⁾가 있었는데 그 시위에 후배가, 부산대학교 후배가 연행되어서 조사받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팔십일(81)년도에 전국적으로 아람회 사건⁴⁾이나 서울에 학림사건⁵⁾이나 이런 걸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집회 시위를 하는, 반(反)정부 시위를 하는 학생운동 세력 혹은 또 사회운동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두환 유신 잔당들의 그 의도가 있었던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그런 아마 의도 속에서 부림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산

1) 2011년 5월 구술 당시 현직

2)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3) 1981년 6월 11일 부산대 사회관에서 김진모(국문학과), 최병철(국문학과), 유장현(전기공학과) 등이 주도하여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1,000여 명의 학생이 벌인 교내 시위. 부산대학교 오십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부산대학교 오십년사>, 1997, 717쪽 참고. 이들이 부산대 중앙도서관 앞 나무 위에 올라가 시위를 주도한 것을 말함.

4) 1980년 5월~1981년 7월 사이 금산, 대전 등지에서 동창생 등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교사,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신분의 박해전 등 11명이 친목모임을 갖거나 대화를 한 내용을 빌미로 대전경찰서가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을 적용,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처벌을 한 사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당시 현역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아람회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5)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태복, 이선근, 박문식, 이덕희, 홍영회를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관련자 26명을 1981년 6월 10일부터 연행하여 불법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진술을 받아 반국가단체 등으로 조작한 사건. 당시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계엄법, 포고령 등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년까지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9. 경찰은 학생(學)들의 조직(林)이라는 뜻으로 '학림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77쪽 참고

에서 그동안에 학생운동, 칠십(7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 세력을 확대하고 또 부마항쟁에도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쪽 양서조합⁶⁾ 하는 선배들과 연결되어가지고 운동을 했던 후배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1)차, 이(2)차, 삼(3)차가 있는데 저는 이(2)차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소위 ‘부산의 학림이다’ 이래가지고 서울의 학림을 따서 부림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 부림사건입니다. 부림사건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노 대통령이 부산 구치소에 면회를 와서 저(제) 아마 변론도 맡았던 거 같은데요. 대화를 주고받고 할 적에 쪽 저희들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노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저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아마 면담을 했던 사람들에게 다 공히 같은 생각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보건대 여러분의 그간의 활동이나 운동은 민주화운동이고 구국운동이고 정당하다고 봐진다. 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사상범으로 조장하려고 아마 했던 모양인데 하여튼 단호하게 싸우고 또 우리 변호사들도 열심히 여러분의 싸움을 도와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전에 인권변호사를 안하셨다 하더라도 인권변호사를 이래 아주 기꺼이 맡아 주셨고 또 나름대로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런 바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면담자 : 연행, 구속 과정에서 구타나 그런...

구술자 : 그럼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 마찬가지로였습니다만은 연행해가면, 그때 합동수사반이었어요. 아마. 기무사에서 나온 거 같고. 그 다음에 대공분실에도 나오고. 그때 국정원이었습니까?⁷⁾ 이렇게 한 세군데서 합동수사반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문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저 앞에 일(1)차는 고문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자 발가벗겨서 ‘통닭구이’⁸⁾ 하고 구타, 몽둥이로

6) 중부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창립한 양서조합(부산 양서협동조합)은 70년대 말 부산 운동세력의 커다란 저수지 같은 구실을 하였다. 부산의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양서조합은 서로 좋은 책과 정보를 교환하며 흥금을 털어놓고 시국을 걱정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었다. 74년의 ‘민청학련 사건’ 및 75년의 ‘김오자 사건’에 얽히어 그 중심세력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간 이래 침체에 빠져들었던 부산의 학생운동도 이처럼 양서조합과 중부교회를 매개로 70년대 말부터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3>, 1998, 396~398쪽 참고

7)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였음.

8) 고문의 일종. “...손등, 손바닥을 수없이 난타하고는 ‘통닭구이’하고 외치더니 끈으로 손발을 묶고는 손과 종아리 사이로 굵고 긴 몽둥이를 가로질러 넣고는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 발, 온몸을 때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 사료, <학림, 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 중 부림사건 피해자 김희옥의 자필진술, 1982, 참고

구타하고 잠 안 재우고, 잠 안 재우고 조사하고 고게 주로 그들의 방법이였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하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육체적인 거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아주 더 심하고 그러니까 아, 정말 자살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런 이 사람들의 고문에 ‘고문보단 차라리 때로는 생명을 끊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일(1)차도 마찬가지로였을 거 같아요. 일(1)차는 오히려 더 심했던 거 같아요.

면담자 : 그런 사항들을 당시 변론을 맡은 노무현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하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특히 노무현 변호사는,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물론 대통령 돼서도 마찬가지로집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솔직한, 자기감정을 이렇게 남과 달리 어렵지 않게 드러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비분강개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도, 법정에서도 아주 변론하면서도 그러고 신문하면서도 하여튼 검찰에 대한 공격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재판에서 형(刑)을?

구술자 : 저는 일(1)심에서 육(6)년, 이(2)심에서 삼(3)년 육(6)월 깎아서 받았고. 인자(인제) 우리 이상록, 고호석씨가 칠(7)년, 일(1)심에서 칠(7)년 받았고 이(2)심에서 오(5)년 받았는가, 하여튼.

면담자 : 그때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님께서서는 어떤 반응이나 입장을 보이셨나요?

구술자 : 아. 뭐 분노하셨죠. 참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하여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런 게 그때 같이 싹텄을 겁니다. 굉장히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쨌든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리고 사법부가 참, 국민들의 민주적인 기대와 바램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반(反)정권운동, 반정권, 반군사정권에 대한 그 인식이 더 구체적으로 가슴 속에 이렇게 안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구술자 주요이력

1948. 부산 출생

1968.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4. 부산대학교 무역학 학사

1971.10 교련강화·학원병영화 반대투쟁으로 제적

1974.04 유신거부 투쟁·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1981.09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4.06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1985.0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987.05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1989.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부의장

1992. 민주당 부산 금정구지구당 위원장

1994.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원

1994.04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소장

1996. 민주당 부산 금정을지구당 위원장

1998. - 201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999. - 2002.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2.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부산본부장

2003.07 - 2006.07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2010.03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2012년 현재)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변론을 맡은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처음 만났다. 1983년 12월 출소 이후 1984년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과 80년대 부산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다. 3당 합당 이후인 1992년, 1996년 총선 당시 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사, 부산민주공원 관장 등을 거쳐 2012년 현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